

2021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후기 공모전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 최우수상

김○민(중어중문학과)

위케어(WeCare) 멘토링

내 용

1.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동기 작성

먼저 '위케어 멘토링'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제가 중어중문학과 학생회 활동을 하던 도중 2021 학년도 신입생 중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과 조교를 통해서 그 친구를 소개 받게 되었고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에 소속된 학생 중 유학생 친구와 함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위케어 멘토링'을 함께 진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멘티 친구와 함께 '위케어 멘토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멘티 학우는 신입생이고 외국 유학생이다 보니 한국의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했고, 저는 제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대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멘티 학우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2.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과정 등 참여 경험 소개

주차별 주제 및 방향(장소)

1번째 활동 : 학교 소개 & 학식 체험 & 친해지기 (성결대)

2번째 활동 : 학생자치기구 소개 & 부·복수전공 소개 (zoom)

3번째 활동 : 학교 주변 맛집 & 궁금한 점 질문 & 발표 함께 보기 (성결대)

4번째 활동 : 비교과 활동소개 & 경진대회 함께 시청 & 휴학 관련 질문 (zoom)

5번째 활동 : 한국 대학생들 여가 시간 파헤치기 (흥대 및 한강)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교 적응기'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나이도 국적도 자라난 환경도 달랐지만, 같은 학과 대학생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만나서 함께 공부를 하거나, 선배인 제가 멘티의 학업적인 부분의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런 활동보다는 아직 1학년 신입생이고 이제 막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적인 측면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지에 목적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약 2개월의 시간 동안 총 5번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을 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번갈아 가면서 학교 및 서울에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학교에 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학교 소개를 시켜주고 함께 학식을 먹었고, 비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나 중어중문학과 소개 그리고 교과 활동 이외에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관심사와 앞으로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것 같고 학창 시절 이야기와 현재 힘든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낮을 가려 하던 멘티가 마지막 만남에는 친한 선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멘티와 함께 했던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마지막 활동 때 함께 홍대와 한강을 가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렇게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알려주었을 때, 학창 시절 여가시간에 집에만 있었다고 한 멘티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 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결국, 1학기가 끝나고 저희는 꼼꼼하게 열심히 활동의 결과로 최우수팀에 선정되었습니다.



3. 선택한 프로그램 관련 역량을 작성하고 프로그램 참여로 해당 역량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작성

프로그램 관련 역량	글로벌 의사소통
------------	----------

제가 '위케어 멘토링'을 신청한 이유는 가깝게 중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한 이유도 있습니다. 현지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수업, 편집된 동영상으로 배우는 것이 현지에서 살았던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경이나 상해 이외에 중국 시골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때마침 멘티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닌 사람이 적게 살고 시골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었습니다. 들은 내용으로는 중국의 시골 지역에서는 한국과 많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와도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음식 자체도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육회'를 멘티는 한국으로 와서 처음 먹어봤고 아직 몇 번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에 '정말 많이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의 문화나 생활환경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것 이외에 현재도 바뀌고 있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글로벌 의사소통의 능력, 글로벌 지식 등이 향상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4.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았던 점, 프로그램의 우수한 점 등 프로그램의 장점 소개

다른 참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위케어 멘토링’을 참여하면서 그냥 편한 후배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외국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전부터 한국에서 알고 지냈던 동생을 만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멘티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면서 느낀 점을 말해줄 때 느껴지는 뿌듯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멘티에게서 배울 점도 있었고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활동을 할 때면, ‘내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스터디나 멘토링도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유학생,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어서 그런지 ‘위케어 멘토링’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남다른 것 같습니다. 멘티에게도 그렇겠지만 멘토 또한 한 학기 동안 의미 있는 활동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5.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제안사항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 되고 내용적인 질을 높이려면 제 생각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S-포인트나 장학금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거기에 따른 확인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집할 때 서로의 생각이 맞는 학생들끼리, 서로 추구하는 입장과 방향이 맞는 학생끼리 매칭이 되어야 그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멘토 멘티가 되면 힘든 시간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중도 포기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매칭이 되어야 하고 중간중간 확실한 검사와 피드백을 통해서 학기 말까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은 대상과 그 이유를 작성하고, 추천 대상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 문구 작성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학생들이 신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비교적 쉽게 활동했지만 ‘위케어 멘토링’의 대상학생들의 의견을 따라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티 친구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용기 내서 신청했을 수 있는데 대충 시간 보내기로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면 멘토와 멘티 서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멘티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정말로 무엇이 하고 싶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멘토에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서로의 시너지가 발휘되어 상호 간의 역량이 개발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케어 멘토링, 이제 우리는 깐부~!”